

‘날 것’과 ‘익힌 것’ 갤러리 SOSO와 최삼영의 소소한 건축

사실 갤러리 SOSO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언젠가 황급히 헤이리를 가로지르던 나는 우연히 마주친 작은 건물 하나에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 적이 있다. 헤이리 한복판의 현란한 건축어휘들에 지쳤던 내게 이 갤러리는 웬지 모를 청량감을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건물은 가와건축의 최삼영 선생이 목구조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가이자 건축주로서 설계한 거란다. 그 건물을 그 건축가 자신의 안내로 다시 보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하겠다.



갤러리 SOSO는 2007년, 이 동네 끝자락, 자투리 경사지에 세워진 연면적 273.74㎡(약 83평)의 자그마한 건물이다. 처음부터 미술관이라는 특정 기능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 몸체인 남측 북측 부분이 갤러리로 사용된다. 전면에서 보일 듯 말듯 산자락에 몸을 가린 북측의 단층 부분은 카페로 사용되는데 그 옥상에 아의 테라스를 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갤러리와 카페 사이는 대지의 경사를 따르는 계단이 가로지르며 두 영역을 구분함과 동시에 연결한다. 더불어 갤러리 2층과 카페의 옥상 테라스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돕으로써 방문자의 동선에 즐거운 선택의 여지를 준다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능적으로는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가, 매스로서는 ‘Head’와 ‘Tail’이라는 요소가 위계를 이루며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를 면해 갤러리의 반쯤이 필로티로 띄워져 방문자를 유도하고, 그 전후면과 북측면이 유리로 둘러싸여 건물 전체의 인상을 좌우한다. 그리고 외부 공간과 마찬가지로 산지의 경사를 따르는 내부 그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1층, 1.5층, 2층의 레벨을 갖는다. 이러한 수직적 공간분화는 직사각형이라는 그 평면적 단순함과 크게 대조를 이루며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내부에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케 한다.

내가 최삼영의 갤러리 SOSO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미스반데어로에’의 건축이다. 미스의 그림자야 그 어떤 현대건축 작품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바이지만, 골조체와 유리상자의 결합이나 이러한 구축을 위해 건축가가 선행한 디테일에 대한 철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이 건물의 주요 미학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미스의 굴직한 흔적을 지울 수 없다. 허나 몇 세대 전 기계시대, 근대건축의 정점을 찍었던 근대건축가의 교리가 우리 현대건축가의 작품에 그대로 나타날리는 만무하다.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목재의 사용이다. 미스의 차가운 강철이 켜던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짐짓 인간의 정서에 태연한 듯한 몸짓을 보였다면, 나무가 갖는 체온과 숨결은 우리의 그것과 그리 다른 것 같지 않다. 갤러리 내부 공간을 떠받치는 기둥과 보의 글루램 목골조는 최삼영의 자랑으로 일본 연구소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미리 재단되어 물 건너 온 이 시스템이 정말 ‘친환경하나?’에 대해서는 아직 부득이한 논란이 있겠으나, 우리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재료를 세련된 현대공법에 맞게 적용했다는 사실은 의당 높이 살만 하다. 외관에서 느껴졌던 다소 쿨한 이미지는 내부에서 골조뿐 아니라 바닥과 천정을 뒤덮은 나무로 인해 따스한 온기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온기는 역시 목재로 내외장된 카페동으로 더 적극 옮겨가는데, 특히 목재 데크의 옥상 테라스 공간에 와서는 재단된 나무와 자연의 나무 사이 교감이 충만해진다.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어디까지가 외부인가? 혹은, 어디까지가 인공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가? 주어진 대지의 지형을 따라 건물을 놓을 때부터 자연과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거드름피우지 않고 작은 몸, 땅에 밀착한 모습이 그 이렇처럼 소소한 구축의 미덕을 보여준다. 레비 스트로스가 제시했듯 자연의 세계와 [the raw] 인간의 문화 [the cooked] 사이에는 끝없는 긴장과 변종이 존재한다. ‘익힌 것’에 지나치게 천착했던 것이 미스 등 여러 근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날 것’이 주는 원초적인 풋풋한 맛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최삼영이 갤러리 SOSO에서 담아낸 ‘날 것’과 ‘익힌 것’의 소박한 배합, 바로 이것이 나의 구미를 당겼던 이유일 게다.



갤러리 SOSO는 2007년, 이 동네 끝자락, 자투리 경사지에 세워진 연면적 273.74㎡(약 83평)의 자그마한 건물이다. 처음부터 미술관이라는 특정 기능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 몸체인 남측 북측 부분이 갤러리로 사용된다. 전면에서 보일 듯 말듯 산자락에 몸을 가린 북측의 단층 부분은 카페로 사용되는데 그 옥상에 아의 테라스를 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갤러리와 카페 사이는 대지의 경사를 따르는 계단이 가로지르며 두 영역을 구분함과 동시에 연결한다. 더불어 갤러리 2층과 카페의 옥상 테라스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돕으로써 방문자의 동선에 즐거운 선택의 여지를 준다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능적으로는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가, 매스로서는 ‘Head’와 ‘Tail’이라는 요소가 위계를 이루며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를 면해 갤러리의 반쯤이 필로티로 띄워져 방문자를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김현섭 교수는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근대건축사를 연구했으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평론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